

안순일 교육감 이름 적힌

격려금 봉투 전달 '물의'

기능대회 참가 학생에... 안 교육감 "실무진의 잘못"

광주시교육청 안순일 교육감이 최근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봉투에 10만원씩의 격려금을 담아 개별적으로 전달할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지난달 8일 광주시 서구 한 연회장에서 열린 '제4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발대식에 참석, 대회에 참가하는 광주시 대표 학생 68명에게 10만원씩의 봉투를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광주 시내 9개 전문계 고교 학생 68명과 교직원 등이 참석했다.

시교육청과 안 교육감은 출전 학생 전원을 일일이 호명하 뒤 교육감이

름이 적힌 봉투에 격려금 10만원씩을 담아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대회에서 광주 출신 학생들이 장려상 1개로 이렇다할 성적을 내지 못하자 격려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격려금은 전액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비에 지출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공무원들은 안 교육감이 행사장을 떠난 직후 68명의 학생들에게 나눠준 봉투를 모두 회수한 뒤 대회에 출전하는 9개 학교별로 교육감 이름이 없는 봉투에 격려금을 담아 다시 전달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시교육청이 이같이 봉투 회수 해프닝을 벌인 것은 안 교육감이 전달한

격려금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 교육감은 "개별적으로 격려금을 전달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실무진이 행사 기회를 잘못했다"며 "이후 학교 행사 기회를 잘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기능대회 참석 학생들을 격려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출전 학생을 일일이 호명해 교육감 이름이 적힌 격려금을 전달한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9월 25~30일 경북 구미 일원에서 열린 제4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광주 출신 학생들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장려상 1개 등 지난해보다 다소 나은 성적을 거뒀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여수서 '나이롱 환자' 등 214명·병원 8곳 무더기 적발

보험금 100억원대 빼먹었다

여수에서 허위·과장 입원을 통해 보험금 등을 타낸 속칭 '나이롱 환자'와 개인택시운전자 등 214명과 이들을 이용해 보험금여부를 부당하게 타낸 정형외과 등 병원 8곳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허위로 타낸 보험금은 100억원대를 넘었다.

또 일부 병원은 진료기록을 영타리 기재해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담당 공무원은 허위로 의료기관 지도 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경찰은 8일 허위 입원을 반복하며 수 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김모(46·여)씨 등 허위 입원 환자 170명과 허위 입원을 통해 보험금과 유류

보조금을 타낸 서모(48)씨 등 개인택시 기사 4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주사비와 물리치료비 등의 의료비를 허위·과다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할 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당 청구한 8개 병원을 적발해 이 중 모 병원장과 원무과장 등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병원장 및 원무과장 14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인 김모씨는 자신과 가족의 이름으로 21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179회의 가벼운 사고와 질병으로 반복 입원해 총 7억3

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모(여·41)씨는 중국 여행기간에도 국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 이번 적발된 가짜환자 170명이 타낸 보험금은 100억 원 가량이 넘는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 8곳은 13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자동차 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 주사처방과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치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다.

특히 A, B 정형외과는 특정 진료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데도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같은 수법으로 병원 8곳은 총 5억5천3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밖에도 실제 병·의원들을 점검하지 않았으면서도 공문서인 의료기관 지도 점검표와 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보건소장 등에 보고한 여수시 보건소 공무원 A씨(7급)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불법 사행성 오락실

실제 업주 등 47명 검거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자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운 뒤 불법 영업을 해 온 성인 오락실 실제 업주 등 47명을 검거하고

이중 10명을 구속했다. 또 실제 업주 등 19명을 상대로 불법 영업 수익 63억원에 대한 추징명령을 내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사행행위 사범에 대하여 실형 선고율이 지난해에 비해 1.61%에 그쳤으나 올 7월에는 75%에 이르는 등 눈에 띄게 높아졌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고마워! CCTV”범인 검거 수훈감 전남 올들어 98명 적발

전남지역에서 확대 운영되고 있는 방범용 CCTV가 범인 검거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강기정(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재 광주·전남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모두 755대(광주 32대·전남 723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5년 9대에 불과했던 전남지역 방범용 CCTV는 2006년 128대로 크게 늘었고 ▲2007년 586대 ▲2008년 723대로 확대·운영됐다. 방범용 CCTV의 확대에 의해 이를 이용한 범인 검거 실적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은 방범용 CCTV를 이용해 2006년 강도 용의자를 포

함해 총 14명의 범인을 검거했으며, 2007년에는 총 29건의 범인을 불잡았다. 올해는 8월 말 현재 수배자 69명을 포함해 총 98명의 범인을 검거하는 실적을 올렸다.

올해 현재까지 32대에 설치되지 않은 광주청의 경우 지난 2007년 개청 이후 1명의 범인을 잡는데 그쳤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꽃 문화제전’ 성황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천)가 주최하는 ‘제2회 꽃 문화제전’이 8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개막했다. ‘꽃과 함께해요! 1등 광주!’라는 주제로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광주지역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장기 미제 사건 크게 줄었다

광주지법 민사 44%, 형사 43% 급감

광주지법법원의 장기미제 사건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광주지법과 순천·목포·장흥지원 등 4개 지원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제 사건(접수일로부터 1~2년이 초과한 사건)은 민사 213건, 형사 35건으로 모두 24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 말과 비교해 볼 때 민사는 381건에서 44%인 168건이, 형사는 61건에서 43%인 26건이 줄어든 것이다. 이로 인해 장기미제 사건 비율도 민사는 지난해 8월 말 1.5%에서 0.8%로 줄었다. 그러나 민사사건의 장기미제 사건비율은 전국 평균(0.6%)을 약간 웃돌았다.

광주지법 최인규 공보관은 “늦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요즘 민사소송이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 중 하나가 신속성”이라며 “소액사건의 장기미제 사건 비율이 높은 것은 법관 부족으로 인해 수년째 소액사건 재판부를 증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내년엔 증원되는 법관들 소액 재판부에 우선 배치하는 등 장기미제 사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제 사건이란 형사사건과 민사합소, 민사합의(소소액 1억 원 초과), 민사 단독(2천만~1억원)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년이, 민사소액(2천만 이하) 사건은 1년이 넘게 지난 미해결 사건을 말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현섭 여수시장

직권남용 무혐의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선별업체 선정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피소된 오현섭 전남 여수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7일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선별업체 선정과 관련,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던 오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구속 입건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거나 조사결과 재입찰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졌던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해 6월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선별업체 선정과정에서 2개 업체를 우선업체로 선정할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가 선정되는데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아왔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나원침 김장동 (7622)



Advertisement for KCC (주) 금복시스템, featuring text about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and contact information: 서울본사: 02) 3445-0943, 광주본점: 061) 337-0571.

인터넷 쪽지로 협박 갈취



○광주동부경찰은 8일 우연히 알게 된 후배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협박성 쪽지를 보내 금품을 갈취한 가출 청소년 S(15·중2)양을 공갈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S양은 지난달 9일 오후 5시 40분께 다른 학교에 다니는 A(13·중1)양에게 ‘뒤통 박살’ 돈을 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 A 양으로부터 현금 3만원을 뜯어냈다는 것.

○A양은 돈을 건넨 뒤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A양의 아버지는 S양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S양이 연락을 피하자 결국 경찰에 신고.

○경찰 관계자는 “S양이 그동안 같은 범죄를 두 번이나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이 면죄위는 축복소년(만 14세 미만)인 탓에 풀려났는데, 최근 나이 제한을 넘겨 입건됐다”고 설명.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일중한의원' (Iljung Han's Clinic) featuring photos of doctors and text: '일중한의원', '최종한의사', '내시경, 로봇, 레이저, 당일진료, 당일수술', and contact info: 062) 676-1075.

Large advertisement for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Gokrakjeon Namboldang is here) featuring text: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만남부오락, 열선부, 모자를 누가 강력사합니까?', and contact info: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